

토론문

내발적 발전 관점에서 본 농촌개발 ODA

여형범 책임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

1. 농촌개발 ODA의 과정 측면

개별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대상국의 농업·농촌부문 개발전략과 우리나라의 협력전략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허장 박사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²⁵⁾ 농촌개발 ODA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떤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사후 평가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김남수 박사가 제안하듯이 사후평가를 위한 모니터링과 자료 공개 방안 및 구체적인 사례 연구 방안이 ODA 사업 계획 안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²⁶⁾ 또한 사전 검토와 사후 평가에는 민영일 사무총장의 지적처럼 새마을운동 ODA 사업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²⁷⁾

이러한 사전 검토와 사후 평가가 가능하려면 현지에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활동하여 현지의 정보에 능통한 사람이 포함되거나 현지 사람들이 사전 검토 및 사후 평가를 주도

25) 허장 박사는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는 베트남의 “신농촌을 위한 국가목표 프로그램” (2010~2020) 외에는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 사례는 미흡하다. 국가별 농촌개발 협력 전략 수립을 위해 대상국의 사회 및 경제 여건 MDGs 달성 정도, 농업 및 농촌개발 수준을 분석하고(1단계), 대상국의 국가 전체 및 농업·농촌부문 개발전략과 우리나라의 협력전략을 분석하고(2단계),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농촌개발협력 전략을 제시(3단계)하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26) 김남수 박사는 밀레니엄빌리지프로젝트의 배경, 목표, 전략, 성과, 평가 등을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보고, 참여계획 상호학습과정, 신중한 확산 전략, 사업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자료 공개, 비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 구체적인 사례 연구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27) 민영일 사무총장은 발표문에서 “우리나라 농촌인가가 행복한가?”를 물었다. 새마을운동의 편익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비용 측면도 균형있게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마을운동이 국내에서도 성공이었다고 자신할 수 없는데 이를 개도국에 전파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비판한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ODA 전문가들이 이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양적, 질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부족하다면 이를 위한 전문가 육성 전략이 함께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전문가나 현지 전문가의 발굴·육성뿐만 아니라 대상국가와 대상지역에 대한 ODA 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할 듯하다. 또한 현재 ODA에서 주변적 역할에 머물고 있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ODA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줄 필요도 있다.

2) 농촌개발 ODA의 내용 측면

새마을운동 ODA가 대상국가나 대상지역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농촌개발 ODA 또는 새마을운동 ODA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새마을운동이라는 타이틀은 기존 농촌개발 ODA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을까?

허장 박사는 발표문에서 2006년도 이후 농촌개발협력 18개 사업들의 세부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소득, 인프라, 보건위생, 교육, 사회복지, 조직, 기타(연구조사, 계획수립 등) 사업 중에서 소득사업, 인프라 사업, 교육사업 순으로 많았음을 보여준다. '새마을운동' 이름을 내걸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새마을운동' 적 요소를 첨가한 '농촌종합개발' 사업 형태를 띄고 있는 셈이다. 민경일 사무총장은 "새마을운동은 누구를 위한 운동이었는데?"를 물으면서 소득중대가 더 큰 지출중대로 이어질 경우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김남수 박사는 MVP가 실패했던 기존 농촌개발 사업과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과, 이러한 비판의 근거로 제시되는 사례(우간다의 옥수수과 강낭콩 재배 사례 등)를 제시한다. 정진영 교수는 기존 환경 ODA가 소프트 교육, 유지관리, 기술 확산, 민간기업 연계 등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한다.

발표문들은 농촌개발 ODA나 새마을운동 ODA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허장 박사의 발표문을 보면 KOICA 농어촌개발 분야 전략은 "식량안보, 소득중대와 삶의질 향상을 통한 개발도상국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에 기여한다"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발표문에는 '내발적 발전'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은 기본적으로 지역 내 자원의 활용보다는 외부 자원에 의존하는 외생적 발전 전략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이다.²⁸⁾²⁹⁾ 농촌 새마을운동이 농업생산성 중대와 소득중대를 강조하지만, 내발적 발전 관점에서 볼 때 지역공동체의 전통과 공유자원을 보전하고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덧붙여 ODA 사업 대상지역의 농민들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 ‘돈’이 지역에서 얼마나 순환하는지에 대한 검토와 외부로 누출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농촌개발 ODA 또는 새마을운동 ODA가 극심한 빈곤 탈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을 지향한다면, 내발적 지역발전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되는 에너지 분야의 전환운동, 생태·환경 분야의 생물권보전지역, 농·식품 분야의 로컬푸드, 지역문화 분야의 슬로시티와 에코뮤지엄 운동, 지역경제 분야의 ‘지역을 사자’ 운동을 어떻게 ODA 사업에 접목시킬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 28) 유럽과 일본 등에서도 외부기업 유치에 기반 외생적 발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낙후지역, 특히 농촌의 대안적 발전 전략으로 내발적 발전론이 등장하였고, 국내에서도 참여정부 시기에 낙후지역의 발전 전략으로 제시된 바 있다.
- 29) 내발적 발전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사업의 성과를 지역사회에 착근시키는 발전 전략으로 정의해볼 수 있다. 때문에 내발적 발전 담론은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발전은 가능한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도하여 지역 내 자산을 보전하고 활용하는 방식의 발전이 가능한가? 지역개발 사업이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고 소회롭게 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외부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묻는다.
-